

■ 연구원 소식

○ 문화교양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 1차 강좌(6월 3일)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사진으로 역사읽기> 교양강좌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일시: 6월 3일(월) 19시~20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사진의 발명(사진 탄생 배경, 중세와 모더니즘 사이)

강사: 장근범(사진아카이브 8 대표)

○ 2차 역사문화기행 신청 안내(신청기간~6월 12일)

2019년 모두 4회에 걸쳐 예정된 역사문화기행의 첫 번째 답사가 지난 5월 11일 열렸습니다. 6월 15일 2차 역사문화기행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역사문화기행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비극적인 민족의 현실을 역사 속에서 낙관했던 신동엽(1930~1969) 시인의 서거 50주기를 맞아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을 방문해 작품과 역사적 사건을 학습하고 부여에 산재한 백제 문화를 경험할 예정입니다.

1. 일 시: 2019년 6월 15일(토) 09시~18시
2. 장 소: 충남 부여군 일원
3. 내 용: 서정적 현대 민중시인 신동엽과 백제를 만나는 부여 기행
4. 주방문지: 신동엽 문학관,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개태사 등
5. 참 가 비: 20세 이상 1만원

6.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09:30	연구원에 모이기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주차장
09:30~11:30	신동엽 문학관 이동 및 답사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2
11:30~12:30	국립부여박물관 이동 및 관람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12:30~13:30	점심식사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101-1
13:30~14:30	궁남지 이동 및 답사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52
14:30~16:30	개태사 이동 및 답사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11
16:30~17:30	개태사 -> 전주대학교	
17:30~	소감나누기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6월 12일까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시는 분에게 신동엽과 탐방지역 소개글,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한국의 킬링필드가 예비되다 (1949년 6월 5일)

한국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던 1949년 6월 5일, 제 1공화국 시대에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단체의 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정식명칭은 국민보호선도연맹이었고 약칭 보련이라 불렸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보도연맹의 창설 목적은 사상범을 전향시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육성한다는 것이었지만 보도연맹 창설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보도연맹이 창설되던 1949년은 좌익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1947년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불법화됐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1948년에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완료됐다. 그리고 1948년 말에서 1949년 봄에 걸쳐서는 군대 내 좌익에 대한 이른바 숙군 총살이 시행됐다. 김구 암살사건처럼,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반이승만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탄압이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보도연맹의 실질적인 결성목적은 좌익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조직 속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위대로 활용해 남아 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 즉 '좌익 뿌리 뽑기' 책략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향자들은 가입 당시 반드시 같이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재한 양심서를 제출해야 했고 가입 후에도 1년 동안 계속해서 자백내용을 검열 받아야 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일제 말에 군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조선인 사상범 또는 정치범들을 묶어 두기 위해 만든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시국대응전선(全線) 사상보국연맹을 상기시키는 단체다. 당시 사상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오제도와 선우종원이 중심이 되어 단체를 설립했다. 일제는 법령을 근거해 조선인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보도연맹은 법적 근거없이 사상검사들이 이승만을 총재로 '모신' 민간 임의 단체였다.

보도연맹은 외견상으로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무, 법무, 국방의 3부 장관과 서울검찰청이 조직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이었다. 표면적으로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 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지만, 보도연맹의 상급 핵심간부들은 모두 정부의 관리들이었고, 간부 중 좌익 전향자 출신은 간사장과 명예간사장뿐이었다. 사실 보도연맹의 창설목적을 보자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정부의 지원 아래 이뤄진 대대적인 포섭전향 활동에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남로당원이나 과거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즉각 체포, 엄중 처벌한다는 경고로 인해, 각 신문사에는 전 남로당원들의 탈당 성명서와 전향 성명서들이 줄을 이었다.

또 해방 직후 남로당,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농민조합 등의 단체에 가입했거나, 각종 문화단체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반강제로, 혹은 단체로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그 결과 창설 1년 만에 연맹원 33만 명을 헤아리는 거대단체로 성장했다.

가입자 중에는 시인 정지용·김기림, 소설가 황순원·염상섭, 국문학자 이병기, 만화가 김용환, 평론가 백철 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유명인은 각종 반공행사에 동원되거나 소위 사상선도 강연 등을 해야 했다. 이들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하고 싶지 않은 강연을 강요당할 때 해방의 감정이 아닌 나락에 떨어진 비애를 느꼈을 것이다. 한반도에 태어난 이상 어딘가에 살아야 하는데, 좌우 등쌀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던 문화인과 지식인이 적지 않았다.

한편,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통행이나 상업 등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배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운영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도연맹 결성 1년 후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즉시 '잠재적 내부의 적'으로 신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정부의 지시에 잘 따랐다. 오제도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을 철수하기까지 각 구(區) 보도연맹 지부를 돌아다니며 보도연맹원들의 모든 '동태를 장악'하였는데, 서울 지역 보도연맹원은 개전 초기 예비 검속되어 각종 반공 구호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6월 28일 정부가 피난 가기까지 서울지방 보도연맹원들 상당수는 예비검속된 후 담당 검사의 통제를 받았다. 서울 지역은 각 구(區) 보도연맹원은 검찰 지휘 하에 소집되어 반공 활동을 하였고, 보도연맹 의무실(전향한 의사, 간호사로 편성)에는 비상구호반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서울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 안내와 구호사업, 포스터 부착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이 생각보다 빨리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자 한강 이남에서는 보도연맹 가입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B·C'나 '갑·을·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 학살 되었다.

연구원이 있는 전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진나 2011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주 형무소에 구금되었던 전주지역 보도연맹원들은 전주시 화산동 소재 강당재, 전주시 효자동 일대, 완주군 상관면 일대, 완주군 동상면 일대, 전주시 덕진동 소재 건지산, 완주군 용진면 소리개재 등 주로 야산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고 한다. 당시 희생자 수는 수천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949년 6월 5일, 일년 후 벌어질 킬링필드가 예비되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천진불이 노니는 설악산 오세암, 네 번째 이야기 - 천진관음보전과 시무외전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만경대에서 내려와 개울을 건너면 바로 오세암 경내다. 다리를 건너 길은 문수동과 보현동 사이를 뚫는다. 두 동의 건물은 오세암을 찾는 참배객과 등산객들에게 제공하는 숙소다. 봄부터 가을까지, 특히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위해 일부러 세운 건물이다. 봉정암과 마찬가지로 미리 예약을 받고 숙소를 제공한다. 찾아드는 손님들을 모두 치러 낼 공간과 능력이 한정된 탓이다.

그런 연유에서 오세암의 스님은 물론이요, 암자의 식구들도 참으로 고생이 많다. 늘 찾아드는 참배객들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공양을 준비하는 일도 그렇거니와, 무시로 드는 산행객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드느라고 잠시도 쉴 틈이 없다. 10월 말이면 벌써 눈이 내려 쌓이기 시작해서 4월이나 되어야 녹는데, 일 년에 6개월을 눈에 갇혀 살면서도 스님과 암자 식구들은 늘 밝은 웃음으로 나그네들을 맞이한다. 위쪽의 봉정암도 마찬가지다.

문수동을 지나 나타나는 건물이 천진관음보전天真觀音寶殿이다. 백의관음보살白衣觀音菩薩을 모신 성스러운 자리로, 앞쪽에다 종각을 건립할 계획이란다. 뒤편의 하늘 아래에는 관음봉과 동자봉이 우뚝하다. 천진관음보전 귀퉁이에서 맑은 물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온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목을 적시고, 수통에 물을 받는다. 언젠가 동행했던 사람 중의 하나가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는 광경이 신기했던 모양이다. 물맛을 보더니 매우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게 물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도 약수가 솟네요?”

내가 농담 삼아 말을 받았다.

“넘어져 이마를 깨 보세요. 이마에서 피가 안 나오나.”

그렇다. 꼭 물이 나와야 할 자리에는 물이 나오는 법이다. 더욱이천하의 명당이라는 자리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명당이 아니다. 명당에서 솟는 물은 '진응수 眞應水'라고 해서 물맛 또한 탁월한 법이다.



시무외전 근래에 지어진 법당이지만 천수천안관음상이 모셔진 곳이다.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 동쪽 건물은 '시무외전 施無畏殿'인데, '시무외 施無畏'란 말을 직역해 보면 두려움이 없음을 베푼다는 뜻이다. 본래 보시 布施에는 재시 財施와 법시 法施 그리고 무외시 無畏施의 세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무외시는 상대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를 아예 구원해 주는 일을 가리킨다. 이곳에 시무외전이 들어선 배경은 다름 아니다. 눈 속에 갇힌 오세동자의 두려움을 없애 주고 해탈시킨 관세음보살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시무외자 施無畏者'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이야말로 무외시의 위력을 지닌 분이 아니던가.

시무외전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 千手千眼觀世音菩薩'이 모셔졌으니, '천수관음'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또는 '천수천비관세음 千手千臂觀世音'이나 '대비관음 大悲觀音'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시무외전에 모셔진 천수관음보살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지녔다. 몸통 좌우에 각각 20개의 팔이 달렸고, 손바닥마다 눈이 하나씩 달렸다.

이 한 손과 한 눈이'이십오유二十五有'를 관장한다고 한다. 이십오유란 중생들이 생사의 고해苦海 속에서 겪어 나가는 25종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20개의 손에 이십오유를 관장하는 눈이 하나씩 달렸으므로 20×25하고, 또 이들이 양쪽에 달렸으니 2를 더 곱하면 곧'천수천안千手千眼'으로 계산된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천수관음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형상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화신으로 꼽힌다. 일체 중생의 소망과 꿈을 빨리 성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흑독한 아픔과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제 오세암에 시무외전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세암은 오세동자를 구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음을 재천명하게 되었다. 모든 중생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고, 생로병사의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암자임을 거듭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세암의 외형적인 격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 다음 주는 <설악산 오세암> 네 번 째 이야기 “천진불이 펼치는 별세계”로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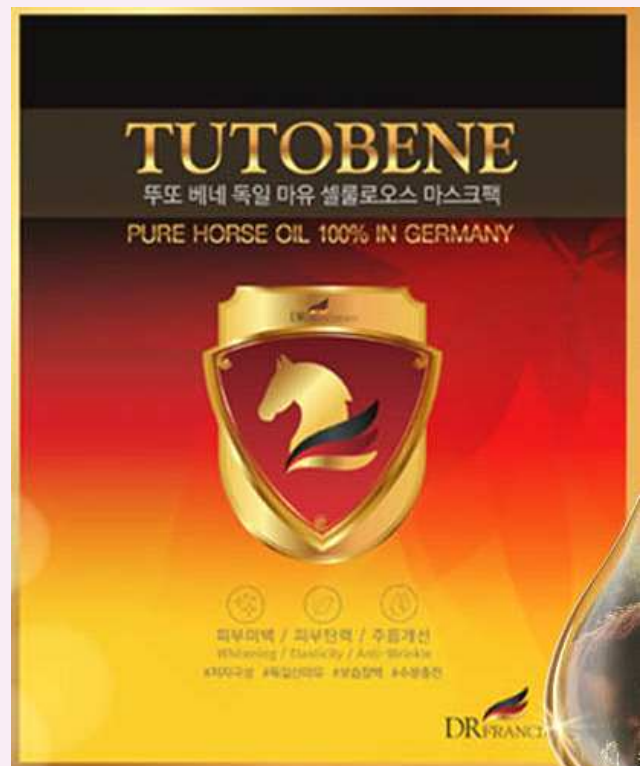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